Equity Strategist 강대석
02)368-6165
ds.kang@eugenefn.com

Global Strategist 허재환
02)368-6176
jaehwan.huh@eugenefn.com

Market Board

지수		종가	전일비	등락률
한국	KOSPI	3,140	-68.7	-2.1
	KOSDAQ	994	-5.3	-0.5
미국	Dow	30,937	-23.0	-0.1
	S&P500	3,850	-5.7	-0.1
	Nasdaq	13,626	-9.9	-0.1
유럽	Eurostoxx50	3,593	39.7	1.1
	영국(FTSE100)	6,654	15.2	0.2
중국	상해종합	3,569	-54.8	-1.5
홍콩	항셍	29,391	-767.8	-2.5
일본	닛케이225	28,546	-276.1	-1.0
금리		종가(%)	1D(bp)	1W(bp)
국고3년		1.002	-0.3	2.5
국고10년		1.767	-1.0	5.7
환율		종가(원)	1D(%)	1W(%)
원/달러		1,106.5	0.5	0.3
원/100엔		1,064.0	0.1	0.3
USD/CNH		6.47	-0.2	-0.1
원자재		종가($)	1D(%)	1W(%)
WTI 유가		52.6	-0.3	-0.7

20 년 만에 '천스닥'

▪ KOSDAQ, 1/26 일 장중 1,000pt 상회

전일 오전 KOSDAQ 이 잠시 1,000pt 를 맛봤다. 2000 년 9 월 이후 약 20 년 4 개월 만이다. 994pt(-0.5%)로 하락 마감했으나, KOSDAQ 도 닷컴버블 이후 새로운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 반면, KOSPI 는 중국 인민은행의 신용에 의한 중기 버블경고와 약 13 조원 규모의 유동성 회수로 부진했다.

▪ 코로나19 위기 이후 반등도, 연초 이후 상대적 부진도 건강관리 업종이 핵심

2020 년 3 월 19 일 428.4pt 로 장을 마감했던 KOSDAQ 지수가 2021 년 1,000pt 에 이르기까지는 건강관리 업종의 역할이 핵심이었다. 1/26 일 기준 건강관리 업종은 지난 3/19 일 대비 +175.4% 상승하며 KOSDAQ 지수 상승에 32.3% 기여했다(아래 도표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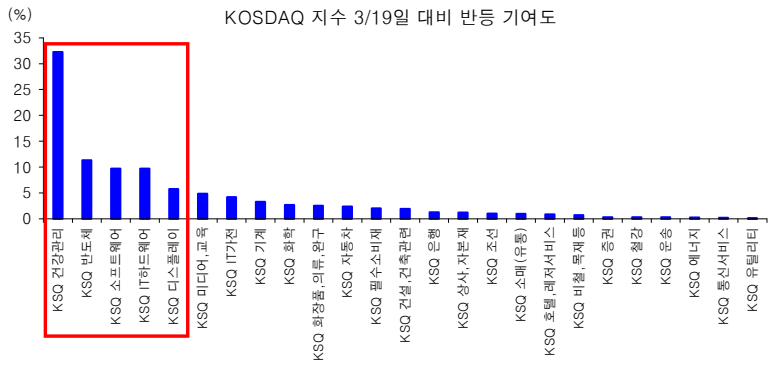
그러나, 올해 들어 1/26 일까지 KOSPI 가 +9.3% 상승한 데 비해 KOSDAQ 은 +2.6% 상승에 그쳤다. 최근 건강관리 업종이 부진하기 때문이다. 연초 이후 KOSDAQ 건강관리 업종은 -4.4% 하락하며 KOSDAQ 상승폭을 제한했다(도표 2).

▪ 금리 하락 국면에서 빛나는 KOSDAQ

결국 KOSDAQ 이 1,000pt 를 넘어서서 더 상승하려면 건강관리 업종과 같은 KOSDAQ 주요 업종의 높은 Valuation 이 정당화되어야 한다. 그러려면 지난 8 월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는 국내 금리의 향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. 한국 10 년 국채 금리와 KOSPI 대비 KOSDAQ 의 상대강도는 2010 년 이후 -0.65 의 (-)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(도표 4).

지난 4Q 이후 상대적으로 KOSPI 에 비해 KOSDAQ 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. 그러나, 반도체 등 IT 와 미디어 업종의 강세로 인해 KOSDAQ 지수의 네 자릿수 안착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. 최근 더딘 백신 접종 확산 속도 및 그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로 금리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. 금리 방향성이 재차 상승 쪽으로 뚜렷하게 전환되기 전까지 KOSDAQ 관심도 유효하다.

'천스닥' 일등공신 건강관리, 반도체, 소프트웨어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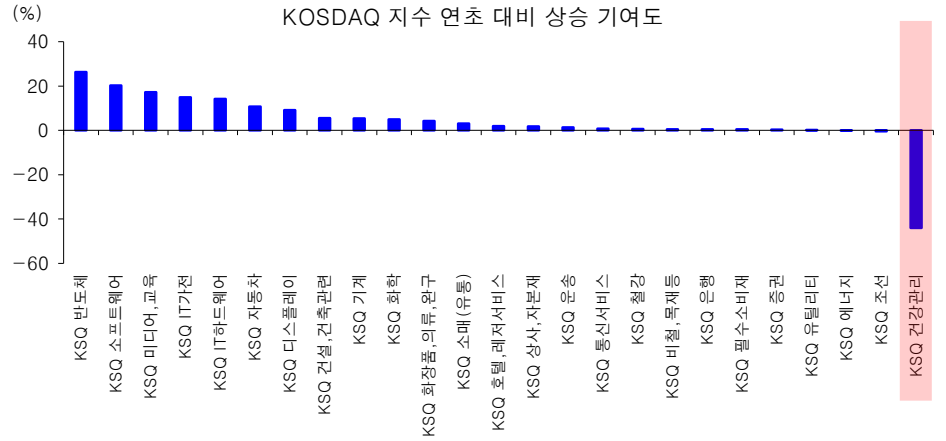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Quantiwise, 유진투자증권

도표 1 KOSDAQ History: 20 년 4 개월 만에 장중 1,000pt 상회

자료: Quantiwise, 유진투자증권

도표 2 반등의 Key Player 였던 건강관리 업종은 연초 이후 부진



자료: Quantiwise, 유진투자증권

도표 3 8 월 이후 상승세인 국고채 10 년물 금리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도표 4 금리 추이와 KOSDAQ 상대강도는 역의 상관관계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 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		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•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0%
•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3%
•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7%
•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0.12.31 기준)